

광복 80주년 장성서 무궁화 대축제

8월 7~8일 장성무궁화공원

우수분화 품평회·페이스 페인팅
거리공연·물총싸움 다양한 행사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뜻깊은 전국 규모 행사가 장성군에서 열린다.

장성군은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장성무궁화공원(장성읍 영천리 985)에서 '무궁화 장성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대축제'는 산림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장성군은 지난해 무궁화 기반시설 구축, 지자체장 관심도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원시, 춘천시, 완주군과 함께 축제 개최지에 이름을 올렸다.

축제가 열리는 장성무궁화공원은 2021년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한 무궁화 명소다. 9500㎡ 규모 부지에 46개 품종, 1만 2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어 협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다.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명소 최우수상,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성군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7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로 시작된다. 무궁화 소품 만들기, 무궁화 페이스 페인팅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직접 무궁화를 길러보고 싶다면 '무궁화 묘목



장성군이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장성무궁화공원에서 '무궁화 장성대축제'를 연다. 축제가 펼쳐질 장성무궁화공원 전경. <장성군 제공>

나눔 행사'를 놓칠 수 없다. 장성군은 총 300개의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무더운 여름인 만큼 '물놀이'도 준비된다. 행사장 한편에서 워터 슬라이드와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다.

허기를 달래줄 푸드트럭도 운영되며, 축제의 흥을 돋우는 거리공연(버스킹)도 예정돼 있다.

개막식은 7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다. 장성지역 학생 뮤지컬 동아리 '하랑'과 가수 황민호, 지장민 등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가 펼쳐질 공원의 야경도 기대를 모은다.

공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반디조명과 태양광 조명, 경관폭포에 설치된 투광등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여름밤 풍경을 선사한다.

장성군은 폭염에 대비해 축제장에 얼음물을 준비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양심 양산'도 비치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대축제'를 전남을 대표해 장성에서 열게 되어 기쁘다"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강진군 '위케이션 in 강진'

참가자 500명 선착순 모집

강진군이 '2025 위케이션 in 강진'에 참가할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일과 휴가를 결합한 위케이션 형태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기획됐다.

강진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도시 직장인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하며 지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부 인구 유입→체류→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강진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2025 위케이션 in 강진'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기업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에게는 평일 기준 1박당 최대 4만원씩, 최대 2박까지 숙박비와 1인당 최대 2만원의 체험비 등 최대 10만원 상당의 숙박 및 체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모든 지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정산을 위해서는 강진군이 지정한 필수 방문지 중 1곳 이상을 방문하고, 체험 후기를 제출해야 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설치

고인돌시장 80m 구간에 23대 천장형 대형 선풍기도 함께

화순군이 여름철에도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시원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고인돌전통시장 내에 쿨링포그 시스템(증발 냉방장치)과 천장형 대형 선풍기(HVLS 팬)를 설치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시장 내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80m 구간에 총 23대의 쿨링포그 시스템과 HVLS 팬을 병행 설치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미세하게 분사된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3~5도 가량 낮춰주는 야외 냉방장치다. 이를 이용하면 미세먼지나 오존 저감, 악취 제거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HVLS 팬은 넓은 면적에 골고루 바람을 보내 실내의 공기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은 아케이드 내에 7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여름철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는 때도 있어 무더위에 취약하던 지적을 받았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쿨링포그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 고인돌전통시장에 설치한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시스템.

템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정남진 물축제' 수익금 전액 수해지역 기부

장흥군이 26일 개막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집중호우로 수해복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취소가 어려워 물축제 수익금 기부를 통해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기로 했다.

한편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을 목표로 열린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팔팔할!'이란 슬로건은 물축제의 유력적 기능은 물론, 장흥의 물이 가진

치유와 건강의 테마를 상징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장흥 특산물과 장흥물을 재료로 한 음료 레시피를 개발해 판매하는 '슬러시 페스타'를 축제기간 내내 주무대 옆에서 운영한다.

중앙로 시가지 상권을 활용한 '물빛 야장, 파베용의 날'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실전형 축제관광전문가 양성 교육

30일까지...자격증 취득 연계

함평군이 지역 축제 기획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관광전문가 양성 교육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지난달 11일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1회 차 운영되며, 이론과 실습, 현장 탐방을 아우르는 실전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축제-이벤트의 이해 및 이벤트연출사 교육(안태기 교수) ▲지역축제와 스토리텔링(최동희 교수)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김정환 교수·사진) ▲창의적인 축제 기획(황준태 교수) ▲축제 콘텐츠 개발(류재현 감독) ▲행사장 안전관리(김지현 교수) 등이다. 이 외에도 ▲야간

경관, 야간 콘텐츠 성공사례(임영택 감독) ▲로컬 관광과 DMO(임석 대표) ▲주민참여, 지역 활성화 방안(오훈성 박사) ▲현장탐방 등 지역 관광과도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교육에는 '이벤트연출사 2급' 자격시험 대비 과정도 포함돼 교육생의 자격취득을 통한 전문성 확보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해당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축제-이벤트 기획 및 연출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 중심 자격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축제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격증도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함평만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특별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담양군, '생명 나눔 헌혈' 행사...소방서·보건지소 순회

담양군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25일 '생명 나눔 사람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은 담양군청과 보건소 천변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이 담양소방서(오전), 대덕보건지소(오후)를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헌혈에 참여한 주민과 공직자에게는 헌혈증과 함께 1만원 상당의 담양사랑상품권, 대한적십자

사 기념품이 지급된다. 헌혈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담양군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사람의 헌혈'을 진행하고 있으며 헌혈증을 수혈이 필요한 군민에게 기부하는 '희망 나눔 실천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헌혈증 기부를 원하는 군민은 담양군 보건소의 약관리팀(061-380-3974)으로 신청하면 1인당 연 1회(최대 20대)를 기부받을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